

# 류현진, 야구인생 최대 위기...빅리그 현역 마감하나

왼쪽 인대 재건 수술시 1년 이상 결장 불가피

토론토와 계약 만료되는 2023년이면 만 36세

완벽 부활 없다면 메이저리그 잔류 어려울듯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야구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UCL)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는다"며 "류현진은 인대를 완전히 재건하는 토미존 서지리를 받거나 손상된 부분 일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류현진은 갑작스런 수술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2015년 자신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인대 재건 수술의 경우, 회복 후 복귀까지 통상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재건 수술을 하면 복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회복 경과와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

다. 최악의 경우에는 2023년 전반기까지 날릴 가능성도 있다.

류현진은 야구 인생 동안 총 4차례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세 번째 수술이다.

동산고 시절인 2004년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후 2015년 어깨 관절와순 병합 수술을 받아 2016 시즌까지 사실상 시즌을 접었다. 2016년 9월에는 팔꿈치 과사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때문에 류현진이 FA 자격을 얻었을 당시, 그의 내구성과 체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의혹이 많았다. 토론토와 4년 계약을 맺을 당시 캐나다 일부 언론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이 가진 능력과 경험을 높게 평가했다.

토론토에서의 출발은 훌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단축 시즌(팀당 60경기)인 2020년에는 12경기에 등판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의 성적을 올렸다. 좌완투수 최고의 영예인 '워렌 스팅상'을 수상했다.

류현진은 2021시즌에도 전반기에는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류현진의 구위가 흔들렸다. 장기간 제구력이 말을 듣지 않았고, 주무기 체인지업은 난타를 당하기 일쑤였다.

류현진은 그해 14승 10패 평균자책점 4.37의 성적을 올렸다. 마지막 10차례의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7.43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류현진의 통산 평균자책점은 3.27(75승 45패)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욱 컸다. 미국 '블리처리포트'는 2023년까지 류현진에게 매년 2000만 달러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악몽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불안한 조짐 속에서 2022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고작 6경기(2승 평균자책점 5.67)에만 등판한 후 시즌을 마감했다.



류현진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 번 '떡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류현진은 과거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구위를 찾아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하지만 내년이면 류현진은 만 36세가 된다. 수술 후 전

성기 시절의 구위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23년 복귀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시 빅리그 구단들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손흥민 "2주 동안 행복...곧 만나요"

6월 A매치 4연전 전 경기 선발...7월 토트넘 프리시즌 K리그 울스타와 맞대결

6월 A매치 4연전을 마친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이집트와의 평가전에서 4-1로 승리했다.

한국은 6월 A매치 기간 브라질(1-5 패), 칠레(2-0 승), 파라과이(2-2 무), 이집트를 상대로 4경기에서 2승1무1패를 기록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태극전사 중 유일하게 4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었다.

또 칠레, 파라과이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 득점은 손흥민이 처음이었다.

뉴시스

질레전에서 센추리클럽(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에 가입한 손흥민은 A매치 102경기에서 33골을 기록 중이다.

유종의 미를 거둔 손흥민은 이집트전을 마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주 동안 너무 행복했다.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아서 허전하지만, 잘 쉬고 곧 만나요 우리"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6월 A매치 4연전을 마친 손흥민은 당분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예정된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의 프리시즌 방한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7월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울스타와 불고,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세비야(스페인)와 만난다.

## 벤투 감독 "6월 A매치 4연전 소득, 팀 정신" 수비 불안 지적에 "실수 있었으나 수비 불안을 본 것 같진 않아" 반박

수비 불안 지적에 "실수 있었으나 수비 불안을 본 것 같진 않아" 반박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6월 A매치 4연전의 소득으로 "팀 정신"을 꼽았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이집트와 평가전에서 황의조(보르도), 김영권(울산), 조규성, 권창훈(이상 김천)의 릴레이골을 앞세워 4-1로 승리했다.

오는 11월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달 4연전을 준비한 벤투호는 2승1무1패로 일정을 마쳤다.

지난 2일 세계 최강 브라질에 1-5로 패했고, 6일 칠레에 2-0으로 승리했다. 10일 파라과이전에선 0-2로 뒤지다가 손흥민(토트넘), 정우영(프라야부르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극적인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가나의 가상 상대로 여겨지는 이집트에 이날 승리를 거두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벤투 감독은 4연전을 통해 얻은 것으로 "팀의 정신"이라고 했고, "잘하지 못한 것

들은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 모든 경기에서 실수는 나오게 된다. 잘 된 것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주축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가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수비 불안이 키워드처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서 "6월 경기에서 사실 수비 불안을 본 것 같진 않다. 실수는 있었다. 앞으로 실수는 나온다. 실수를 분석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수비라인 이외에 많은 것을 분석해야 한다. 첫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오른쪽 센터백으로 원발(잡이) 선수를 넣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무엇보다 선수들의 반응이 좋았다. (브라질에 1-5로 패한 뒤) 두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것과 (파라과이전에서) 0-2로 뒤졌지만 후반에 우리 스타일을 보여준 반응들이 이번 소집의 소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임성재 "US오픈,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대회"

오늘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의 더 컨트리클럽서 개막

임성재(24)가 제122회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US오픈은 오는 16일(한국시간)부터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의 더 컨트리클럽(파 70·7264야드)에서 개막한다.

US오픈은 올 시즌 3번째 메이저 대회이다. 페덱스컵 상위 30명의 선수들 중 29명이 출전할 예정이고, OWGR 상위 50명의 선수들 중 49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디펜딩 챔피언 윤 람(스페인)과 올해 마스터스 챔피언 스코티 셰플러(미국), PGA 챔피언십 우승자 저스틴 토머스(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에 출전해 PGA 투어 회원 자격을 잃은 더스틴 존슨, 필 미켈슨(이상 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

인) 등도 US오픈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US오픈까지 출전한 후 향후 PGA 투어에 출전할 수 없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 김시우(27), 김주형(20), 이경훈(31)이 출전한다.

임성재는 US오픈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임성재는 "지난달(코로나 확진으로) PGA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아쉬웠다. 한국에 있는 동안 경기 중계 방송을 시청했으며 다시 경기장으로 가서 경쟁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졌다. 이번 주에 개최될 US오픈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의욕을 다졌다.

대회 코스에 대해 "더 컨트리클럽에서 경기해본 경험이 없기에 코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US오픈이 개최되는 골프장들은 항상 긴 코스와 긴 러프 그리고 읽기 어려운 그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특정 홀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공략하기 보다 레이아웃을 공략하는 등 코스 매니징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US오픈은 안전한 대회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성재는 "US오픈에서 리더보드 상위권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 낮은 점수가 필수적이지는 않다. 안전하게 경기를 해야 할 때는 안전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주 대회는 분명 친화적이고 인내심을 위한 좋은 시합대가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메이저 대회에 임하는 임성재는 "한 시즌에 메이저 대회는 4개밖에 없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자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대회의 우승자가 되는 것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 더 큰 욕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게 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뛰어나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대회 우승에 도전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시스



광주시체육회는 금호고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를 2대 1로 누르고 우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광주시체육회 제공)

## 금호고, 축구 협회장배 전국대회 우승...백운기 이어 두번째

전주영생고 2대 1로 누르고 우승

광주FC U-18 금호고등학교 축구팀이 올 시즌 두번째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광주시체육회는 금호고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를 2대 1로 누르고 우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호고는 지난 2월 제23회 백운기 우승 이후 두번째 전국대회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결승전에서 금호고는 전반전에만 두골을 넣으며 전주영생고의 기선을 제압했다.

나상우가 전반 16분 코너리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머리로 넣어 선제골을 터트렸으며 33분에는 문민서가 두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어진 후반전 금호고는 3분만에 전주영생고에 실점 했지만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막아 우승기를 들어올렸다.

금호고는 이번대회 예선 3조에 포함돼 2승

1무 조 1위로 8강에 올랐다.

8강전에서 서울이랜드 U-18을 3대 0으로 이겼으며 4강전에서도 부천FC U-18팀을 4대 3으로 눌러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지역 고교 축구를 대표하는 금호고가 지난 백운기에 이어 협회장기 우승을 차지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우승도 기대된다"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발굴돼 지역 축구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담양 한궁팀, 제5회 전라남도 연합회장기 한궁경기대회 단체전 '우승'

담양군노인회 한궁팀이 제5회 전남연합회장기 한궁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는 지난 13일 전라남도 체육회관에서 열린 전남연합회장기 한궁대회에 출전해 남·녀 단체전 우승, 여자부 개인전 3위, 남자부 개인전 2위의 성적을 거뒀다.

대회는 22개 시군별로 남·녀 개인전 각 1명만 출전하는 개인전과 남·녀 각 5명으로 팀을 꾸린 단체전 1팀의 경기를 통해 조별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 개인전에서는 유정근 씨가 참가해 2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 개인전에 출전한 최

삼례씨가 3위의 성적을 거뒀다.

여자부 단체전에서는 최삼례, 정순임, 김옥순, 주복남, 송은숙 씨가 참여한 기량으로 1위에 올랐으며, 남자부 단체전에서도 윤송춘, 박춘봉, 진재익, 박태석, 유정근 씨가 참가해 우승했다.

담양·박종영기자